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아버지와 두 아들

본문: 누가복음 15장1~3절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맞게 됨으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새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에게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탕자의 어떤 허물도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세상은 마치 멈춘 시계와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슬픔과 고통의 깊이는 우주라도 다 답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구원의 역사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야 할 남은 고난입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 성령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감격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와 직업이 달라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누가 탕자인가

한편, 탕자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문 밖에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집니다. 자신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 일했는데 창기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인 것이 분한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확신이 슬픔으로 다가오지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로 끝이 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탕자인가...” 본문은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 아름다운 상상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만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탕자를 찾아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혹, 끝내 탕자를 찾지 못하고 혼자 돌아왔다면 말입니다. 아버지가 분노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버지의 마음을 섬겨주어서...” 탕자를 비록 찾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섬겼기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순종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와 감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길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 물줄기는 계속 흐르지 않기에 마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걸으면 살리는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영혼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걷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질문

1. 누가 탕자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하나님 마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시작한 일”

김벌(E. Kimbal)은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마운트버논 회중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결국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바로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감동시킨 무디(D. L. Moody)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회심한 후에 전도자가 된 무디는 21년 후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F. Meyer)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뒤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채프만(J. Chapman)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했던 채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B. Sunday)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썬데이는 함(M. Ham)을 강사로 초빙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샬로트에서 3주간이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신자는 겨우 16세의 소년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이름이 훗날 전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김벌 선생은 잘 알려지거나 크게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오히려 성격이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무디를 만났을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하였을 때에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더구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디 역시 한 동안 교회 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벌 선생은 가난한 무디가 실의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 어느 날 무디의 구두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둘은 함께 무릎을 꿇고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깊은 감동 중에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는 평생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3개의 학교를 세웠고,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도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크게 부흥시켰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큰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888년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향해 떠나기 바로 전날, 51세의 무디는 게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한 젊은이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지. 내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걸세!"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가운데 하나인 마포삼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스왈튼, 찰스 번하이젤, 그리고 윌리엄 헌트 역시 무디의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 조선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작은 교사의 불꽃 하나가 선교의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THINK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한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의 불씨가 곳곳에서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큰 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주 남았습니다.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
마을특송	섬김	살롬	온유	청장년부	임마누엘
대표기도	한선미 권사	전진희 권사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5일
본당청소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임마누엘
중식봉사			청장년		

주요광고

-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세례자 교육 / 일시: 11월 20일(주일)부터 5주간 / 중식 후 12시 40분 / 장소: 4층 VIP실
- ◎ 아가페 한 영혼 초청잔치 / 일시: 12월 1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3층 로비에 <초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니, 수령하셔서 VIP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장님들께서는 17일(토)까지 목장사역센터로 VIP최종 명단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8일 주일에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 어린이 선물 / 영유아부 및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자, 학용품)을 받습니다.
23일(금)까지 2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을장. 목자 위로회(연기) / 일시: 12월 18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 부서 총회 및 결산보고/ 사무연회 준비를 위해 12월 18일까지 목장센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3 강단헌화자 /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신청서가 게시되었으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교육부서 교사지원 / 다음세대를 함께 세워갈 교사를 모집합니다(문의: 서민기 목사).

■ 파워전도대 토요일전도 (2시 30분 /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서리집사 / 다음 주: 새가족부)

■ 교우소식 ■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이문형 장로/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문동준 청년/
장순희 집사/서승석 성도/백선기 집사/김채영 권사

전도합시다!

초청주일 12월 18일 주일 11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